

회원투고

## 울릉도의 생태관광<sup>1)</sup>

김 원 학<sup>2)</sup>  
일간보사신문

여름휴가지로 울릉도를 선택했다.

포항에서 저녁때쯤 출발했기 때문에 울릉도에 도착했을 때는 시간이 너무 늦어 마땅히 저녁을 해결할 곳조차 찾기도 어려웠다.

간신히 식당을 찾아 홍합밥으로 끼니를 채웠다. 메뉴조차 여유롭게 결정할 상황이 아니었다.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 하지만 선택은 나쁘지 않았으며, 오히려 탁월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명이가 반찬으로 올라왔다.

울릉도의 식당 어디를 가도 명이 곧 산마늘은 빠지지 않는다.

고려시대(1157년) 공도정책으로 울릉도에는 사람이 살지 않다가 1882년 조선 고종 19년에 개척령으로 본토에서 개척민이 들어왔다. 겨울이 닥쳐 가지고 온 식량이 떨어지고 풍랑도 심해 양식을 구할 길이 없자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는데, 이때 눈 속에서 싹이 나오는 산마늘을 발견해 캐다가 삶아먹고 겨울을 넘겼다고 한다.

명이에겐 섬유질이 많아 장의 운동을 자극해서 장안에 있는 독성물질을 배출하고 콜레스테롤을 정상화시키고 변비를 없애 주며, 비타민A가 많아 피부, 감기에 대한 저항력도 높여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울릉도에서는 명이를 봄과 여름철에 빨명이 숙회, 생채, 무침, 명이장아찌, 명이김치

(물김치, 양념김치) 등의 요리재료로 사용한다.

텐트를 가지고 왔지만 여행 첫 날인만큼 따뜻한 방에서 편안하게 여행일정을 훑아보려 했다. 그러나 묵을 곳은 없었다. 울릉도에서의 텐트생활 또한 선택 아닌 필수였다.

동행한 친구와 울릉도에서의 휴가계획을 꼼꼼하게 논의하다 잠을 늦게 청하는 바람에 울릉도에서서의 실질적인 첫 아침을 일찍 맞이하려 했던 시도는 애초에 무리였다.

그래도 비교적 늦지 않은 7시쯤에 일어나 밥을 지어 참치김치찌개, 김과 같이 식사를 마쳤다. 첫 대면하는 풍경을 찬찬히 살펴며 여유로움을 만끽했다.

이제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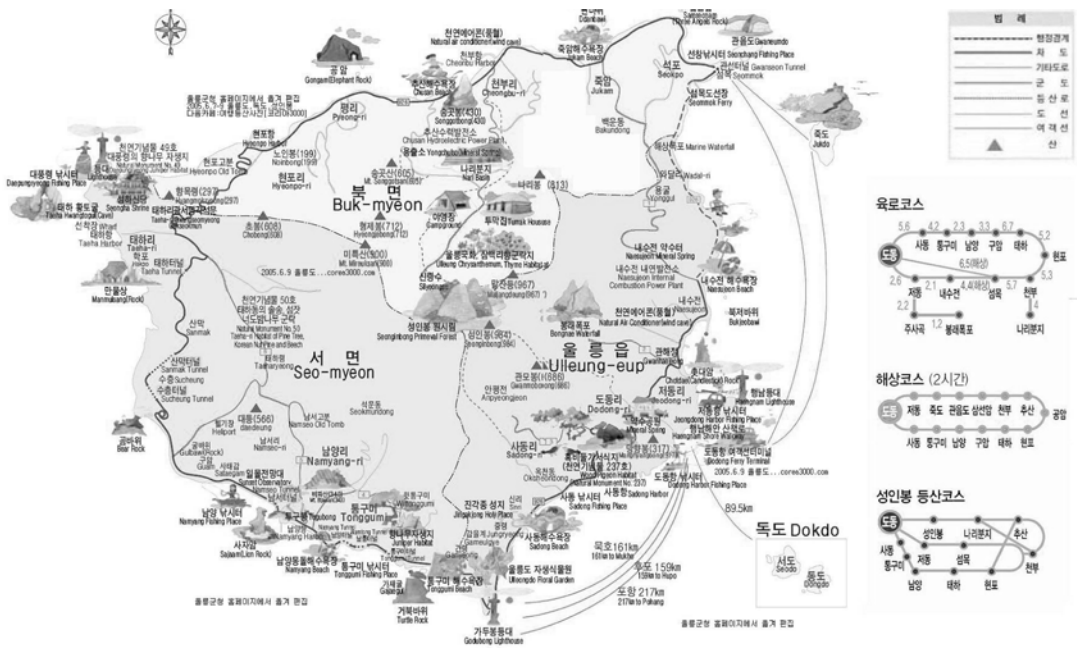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지라 그에 비례해 렌즈와 삼각대 등 장비도 적지 않기 때문에 제법 어깨를 짓누른다.

사진을 찍으면서 산행을 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 숲속에서는 빛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삼각대를 설치해야 하는데, 배낭에 매단 삼각대를 떼었다 붙였다 하는 것이 아주 귀찮다. 그래서 아예 카메라를 붙여놓고 따로 들고 다니게 된다. 그렇지만 등산에서 손에 무엇을 들고 움직이기는 불편하고 힘들다.

카메라가 부착된 삼각대를 든 손 말고 다

1)Uleung-do Eco-tour

2)KIM, Wonhak, The Daily of Health and Social; E-mail: kimonak@hanmail.net



른 쪽에는 카메라 가방이 들려있으니 양쪽 손 모두 사용할 수 없기도 하다.

배낭을 메고, 한쪽에는 카메라 가방을, 다른 손에는 삼각대를 들고 산행을 시작하는 것이 고되기 때문에 처음 출발할 때는 삼각대를 배낭에 부착하고, 카메라는 가방에 넣는다.

삼각대를 푸는 순간이 바로 고생의 시작 이랄 수 있다.

때문에 첫 번째로 찍게 되는 대상을 빨리 만나고 싶기도 하지만 될 수 있으면 늦게 만나기를 바라는 이율배반적인 마음을 안고 산행하게 된다.

이번에 경험한 것이지만 산행을 하면서 전화를 하는 것은 최악의 상황이다.

급한 일이 생겨 여러 사람에도 문자를 보내고 그들에게서 걸려오는 전화를 일일이 응대하다보면 쉬지도 못하면서 이동을 못하게



성인봉 안개



성인봉 원시림

되는데, 그렇게 전화와 씨름을 하다 보면 산행 페이스를 잃게 된다.

이번 여행에서도 전화 때문에 체력이 완전히 고갈됐다.

산행하면서 당근 몇 개와 육포로 체력을 보충하려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날씨가 좋지 않아 성인봉에서 내려다본 나리분지는 그저 뿌옇기만 했다. 맞은편에 병풍처럼 드리워진 산봉우리들도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등산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성인봉 원시림의 매력은 듬뿍 느낄 수가 있는 산행이었다.

길가에 핀 꽃들과 아름답리 섬피나무 섬벚나무 우산고로쇠나무, 또 큰 나무 아래를 완전히 뒤덮은 양치식물에 이르기까지 무엇 하나 놓치기가 아까운 광경이었다.

꽃이 졌지만 섬노루귀와 큰두루미꽃, 섬말나리, 왕호장근 등도 반가운 섬 주인들이었다.

성인봉에서 내려오면서 거의 탈진한 상태로는 산행을 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나리분지까지 접근하지 못하고, 예정에 없이 산 중턱에서 하루를 묵게 됐다.

아쉽지만 무리하지 않는 것이 다음날 일

정을 원활하게 소화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으로 휴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후박나무는 울릉도의 독특한 식물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후박나무는 제주도와 울릉도, 남쪽의 섬 지방에서 주로 자라는 상록활엽수로 육지에서는 전북 부안이 자생 북한지일 만큼 따뜻한 지역에서만 자라는 식물이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울릉도 사동의 흑비둘기 서식지에는 후박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울릉도는 위도상으로 강원도 삼척 정도와 비슷한 위치이지만 실제 기온은 제주도나 남쪽 섬과 비슷할 정도로 따뜻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라는 식물중에는 동백나무나 굴거리나무, 식나무 등 상록활엽수 뿐만 아니라 사철란, 새우난초 등 남쪽에 자라는 식물들이 많다.

울릉도는 250만 년 전 동해 2000 m 해저에서 일어난 거대한 화산 폭발로 생긴 화산 섬으로 처음에는 생명이 없다가 해양성 난류의 영향을 받아 제주도나 남해안에 자라는 식물들이 통나무나 부유물 등과 함께 바닷물을 타고 이동했거나 깃털을 가진 씨앗

이 바람의 영향으로 이주했을 수도 있다. 또 새의 깃털에 달라붙어 울릉도에 안착했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 동해에 흐르는 난류가 제주도나 남쪽 섬에서 자라는 식물의 씨앗을 울릉도로 옮겨 놓았고, 울릉도의 기후조건이 이들 지역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주해온 식물들이 큰 어려움 없이 정착할 수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릉도만이 갖는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남쪽의 따뜻한 지방에서 자라는 식물뿐만 아니라 육지의 남쪽지방에서는 볼 수 없고 중부 이북에서나 볼 수 있는 만병초나 큰 연령초 등의 식물들도 상당수 분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식물의 분포는 난류의 영향을 받아 식물이 이주했다는 해석만으론 설명이 힘들



섬피나무

다. 울릉도의 기후조건이 육지에 분포하고 있는 이들 식물의 생육조건과도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육지에서 해발 1400미터 이상의 고지대에 자라는 고산성식물인 만병초는 해발 700미터 이상의 울릉도 산지에서 자생하면서도 해변에 옮겨 심어도 잘 자라고 있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울릉도 특산식물은 40여종에 이른다. 세계에서 울릉도에만 분포하는 식물도 30여종에 이른다.

울릉도에만 자라는 특산식물에는 너도밤나무를 비롯해 섬노루귀, 섬자리공, 우산고로쇠, 섬백리향, 울릉국화 등이 있는데, 이들의 이름에는 대부분 ‘섬’자나, ‘울릉’, ‘우산’ 등이 붙어있다.

‘섬’자는 말 그대로 섬을 나타내지만 특히 울릉도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으며, 울릉도는 두 말 할 것도 없이 울릉도를, 그리고 우산은 울릉도의 옛 이름인 ‘우산국’에서 따온 말이다.

울릉도에는 또 잎과 꽃이 커서 ‘왕’자를 붙인 왕호장근이나 왕해국 등과 같이 대형식물이 많다는 점도 특이하다.

울릉도 특산식물인 너도밤나무와 솔송나무, 섬개야광나무 및 땡강나무, 울릉국화 및 섬백리향 서식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으며, 너도밤나무와 우산고로쇠 등이 균락을 이루고 있는 성인봉 원시림도 문화재청의 특별 관리를 받고 있다.

울릉도 특산식물에 주목하는 것은 식물의 진화에 대한 열쇠를 풀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육지에서 건너온 식물들이 오랜 세월 동안 울릉도의 독특한 환경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게 되는데, 이들 식물이 특산식물이다. 그래서 울릉도는 한국의 ‘갈라파고스섬’이라고 일컫는다.

한반도에서 가장 늦게 태어난 섬으로 육



섬노루귀

지와 멀리 떨어져서 독특한 식물상을 유지하는 울릉도에는 모두 모두 580종의 식물이 자라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식물 종의 18%에 이르는 것이다. 전체 국토면적의 0.05%에 지나지 않는 섬이지만 생물다양성은 이처럼 풍부하다.

성인봉 중턱에서 맞은 여행 이틀째. 아침에 짐을 정리하다보니 비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비를 맞으며 산을 내려가다 보니 안개에 뒤덮인 원시림이 너무 아름다웠다.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즐길 수 있는 한 순간의 여유다.

예전에 성인봉에 왔을 때는 내려가는 길이 몹시 가팔랐기 때문에 빗길을 내려가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나무로 계단을 새로 단장해서 그다지 어려움은 없었다.

중간이 가벼운 돌을 주웠는데, 개울에 던지니 둥둥 떠다녔다. 울릉도가 화산섬이란 사실을 다시금 깨닫는 순간이었다. 갖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이었지만 가만히 지켜만 보다 내려왔다.

신령수라는 약수터에서 꿀맛 같은 생명수

를 얻고 나니 근처에 노란색으로 치장한 노랑물봉선이 눈에 들어왔다.

약수터에서 더 내려오니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울릉국화와 섬백리향 자생지가 보여 잠시 머물며 꽃이 핀 섬백리향과 아직 꽃이 피지 않은 울릉국화의 모습을 필름에 담았다.

초가지붕의 투박집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장소다.

투박집은 전체 외벽을 억새로 두르고 있는데, 눈이 많이 오는 울릉도의 특성을 잘 반영한 집의 구조로 보인다. 문이 없는 뒤쪽 공간은 어두컴컴해서 이동하기에 불편한 감이 있었지만, 육지에서는 보기 힘든 특이한 모습이었다.

이번 여행에서 자욱한 안개 때문에 나리분지는 주변 풍경을 감상하지도 못한 채 빠져나왔다. 분지를 벗어나 도착한 곳은 천부항이다.

천부항에서 새벽을 맞이하니 다음날 떠나야 하는 일정이 뻑뻑해졌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천부항 근처에 있는 풍혈을 보는 것을 포기했다. 더운 여름에 시원한 바람이 부는

곳에서 잠시 열기를 식히려 했던 계획은 수포가 됐다.

천부에서 죽암까지는 해안도로를 이용했다. 하늘이 파랗게 맑지는 않았지만 햇볕이 쏟아졌기 때문에 더위와의 싸움이었다. 포장 도로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단단한 뼈를 무르게 만드는 것 같다.

죽암에서 석포전망대쪽으로 오르는 가파른 길은 최악의 코스였다. 시작할 때와 다름없이 무거운 배낭과 카메라를 메고 여름 피야별을 걷는 것은 수행과도 같다. 주저앉고 싶은 심정을 억누르고 가던 길을 재촉했다. 시멘트 포장에 그늘도 별로 없는지라 점심때가 넘어서야 능선에 도달할 수 있었다.

석포에서 정매화곡 쉼터를 거쳐 내수전 전망대에 이르는 능선 길에서는 바다 저편에 자리 잡은 죽도를 끊임없이 볼 수 있었다. 풍차가 돌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언제 기회가 된다면 들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매화곡 쉼터를 지나 내수전 전망대로 가는 짧은 길에서는 비를 만나 잠시 허둥했지만 30분도 안 돼 비가 그쳤기 때문에 빗속을 뚫고 여행해야 하는 위험은 감수하지 않아도 됐다. 길가에서 만난 산딸기는 잠시나마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제였다.

비가 올 때 저동까지 차를 태워준다는 이가 있었지만 한사코 마다했다. 일정은 힘들었지만 아직 걸어가면서 보고 느껴야 할 것들이 많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내수전전망대에서 도로를 따라 내려가다 보면 나타나는 내수전약수터의 물은 철분이 많이 들어 있어 붉은색을 띤다. 약수라니 맛을 아니 볼 수 없지 않은가. 과거 펌프로 물을 길어 올릴 때 섞여 나오던 녹물과도 비슷한 맛이다. 이 물에 건강에 도움을 주긴 하는 걸까?

저동에서 도동으로 넘어가는 언덕 부근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다. 언덕에서 바라보는 도동항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이었다. 내일

이면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

다음날 정든 곳을 떠나야 한다는 아쉬움을 달래며 호박엿과 호박제리를 사들고 배에 올랐다.

울릉도를 이야기하자면 호박엿을 빼놓을 수 없다.

그런데 울릉도 호박엿에는 호박이 들어가지 않았었다고 한다.

원래 울릉도 호박엿은 약재로 쓰이는 후박나무의 껍질을 넣고 만들었다. 이 후박나무 껍질을 넣어 만든 엿은 언제부터인가 호박을 넣고 만든 호박엿에 자리를 내주게 됐고, 지금에 와서는 호박엿만이 울릉도의 특산품으로 알려지고 있다.

울릉도에 호박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것은 1882년 울릉도 개척당시 육지에서 이주해온 유민들이 호박종자를 가져와 재배하면서부터인데, 이후 호박의 재배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호박의 이름은 뒷전으로 밀린 것이 아닌가 싶다.

울릉도가 생물의 보고임에도 불구하고 관광산업의 발달과 함께 산림의 개간, 해안도로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식물 자생지가 파괴되고 있어 보전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관광이라는 이름으로 개발이 진행되면서 울릉도 하천 곳곳에는 별건 물이 마르지 않고 있다. 중장비의 움직임이 분주해지면서 산과 들이 파헤쳐지고 있다.

울릉도 자연의 소중함을 알기에 환경부가 울릉도를 국립공원을 지정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하기도 했다.

울릉도에서 4박 5일을 지내고나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여행이었지만 그곳에서 지낸 시간이 너무 짧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부족한 것은 다음에 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